

『六經合部』의 板本 研究

A Study on the Editions of *Yukgyeonghapbu*

송 일 기 (Song, Il-Gie)*

김 유 리 (Kim, Yu-Ri)**

◁ 목 차 ▷

- | | |
|--------------------|--------------|
| 1. 緒 論 | 5. 刊行 參與者 分析 |
| 2. 「六經合部」의 編成 및 內容 | 6. 結 論 |
| 3. 「六經合部」의 板本 現況 | <참고문헌> |
| 4. 「六經合部」의 板本 分析 | |

<초 록>

이 글은 대승경전의 주요경전으로 꼽히는 6종의 불경을 합부하여 편찬 간행한 『六經合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六經合部』의 간행현황을 파악하고, 판본에 기록된 참여자를 역할별로 나누어 분석했다. 또한 이 책이 처음으로 간행될 때 수록된 성달생의 발문을 분석하여 편찬 및 간행 동기를 고찰했다. 이 책은 전국적으로 49종의 판본을 발견했지만 후대에 변용이 일어난 19종의 판본을 제외한 30종의 판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이 책은 1424년 안심사에서 도인 신현이 성달생에게 금강경을 필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에 성달생은 금강경 이외에도 당시 수행인들이 존중했던 5종의 불교경전을 함께 필서하여 간행하였다. 연구대상본 30종의 판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28종이 임진왜란 이전에 개판되어 조선 초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사실을 조사하였다. 모든 판본의 형태적 특징이 사주단변과 8행17자의 판식을 준용해서 비교적 단순한 판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분석을 통해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판본이 개판되었는데, 이는 전라도 안심사에서 처음으로 『六經合部』가 개판된 이래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要語: 안심사, 성달생, 육경합부, 금강반야바라밀경, 대방광불화엄경입부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대불정수능엄신주, 불설아미타경, 관세음보살예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gsong@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대학원 BK연구원(yurifair@naver.com) (공동저자)

접수일: 2012년 9월 4일 최초심사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9월 15일

<ABSTRACT>

Yukgyeonghapbu is a scripture collection which had been published by binding six important scriptures of Mahayana Buddhism. This study identified the publication history of *Yukgyeonghapbu* and analyzed them by classifying the participating persons recorded in each edition by their functions.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prefaces of various *Yukgyeonghapbu* editions and studied the purpose of editing/publishing of *Yukgyeonghapbu*. It was possible to find 49 different editions of *Yukgyeonghapbu* however, only 30 of them were studied. 19 were excluded because they were changed in later period.

It was possible to find the first publishing of *Yukgyeonghapbu* in the preface by Seong Dal-saeng in the first edition of *Yukgyeonghapbu* published by Ansim-sa Temple(安心寺) in the year 1424. There had been a Geumgang Scripture edition which had been previously transcribed by Choi Sa-rip; however, it was difficult to read because it had been too old and deteriorated. Accordingly, the ascetic Shin Hyeon asked Seong Dal-saeng to transcribe Geumgang Scripture again. Seong Dal-saeng agreed and he further included five more important scriptures, in addition to Geumgang Scripture. This became the first *Yukgyeonghapbu*.

The result of analysis on 30 kinds of editions was that 28 out of 30 had been first published before the Imjin Waeran War (Japanese invasion to Joseon in 16th century). They had been mainly published during the early period of Joseon dynasty. All editions used relatively simple style by using Sajoo(世祖) Danbyeon style (text in rectangular box made of single line, 四周單邊) and 8-row/17-character format. Ansim-sa Temple which first published *Yukgyeonghapbu* is located in Gosan, Cholla-do Province. Since then Chollado area produced the largest number of *Yukgyeonghapbu* editions continuously.

Key words: Ansim-sa Temple, Seong Dal-saeng, *Yukgyeonghapbu*,
Geumgang Banya Baramil Gyeong,
Daebang Gwangbul Hwaweom-gyeong Ibusaeui
Haetalgyeonggye Bohyeonghaengpoom,
Daebul Jeongsoo Neungeom Shinjoo,
Bulseol Amita-gyeong, *Gwanseumbosal Yemun*,
Myobeob Yeonhwagyeong Gwanseumbosal Bomunpoom

1. 緒 論

불교전적사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에 송원본(宋元本)의 단순 수용과 보급에서 우리의 독자적 판본을 만들어 내는 일대 중요한 전환기였다. 이러한 시점에 걸출한 선사자(善寫者)인 성달생(成達生)이 등장하여 그의 판서본(板書本)을 바탕으로 「法華經」을 비롯하여 「楞嚴經」과 「六經合部」가 개관되어 널리 유통되는 전기를 마련하였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¹⁾

이 당시 「世宗實錄」을 보면 “이전부터 법석(法席)에서 법화, 화엄, 삼매참, 능엄, 미타, 원각, 참경 등의 불경을 독송하였다”²⁾라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초기 세종대에 이르기까지 승려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도 「法華經」, 「金剛經」, 「華嚴經」, 「阿彌陀經」 등의 불경이 널리 읽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독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합부(合部)한 불경의 출현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신현(信玄) 등의 요청에 따라 성달생이 판서본(板書本)을 필사하여 1424년에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安心寺)에서 처음으로 개관을 보게 된 불교전적이 바로 ‘六經合部’였다.

이른바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수능엄신주, 관세음예문 등을 합부한 육경합부는 조선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널리 독송되는 대승경전의 주요경전을 망라하고 있다. 이처럼 육경합부에는 주요 대승경전의 내용이 한 책에 모두 수록되어 있어 당시 불교인들이 손쉽게 지니고 다니면서 독송 또는 독서하는데 매우 편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안심사본이 개관된 이래 불과 15세기 한 세기 동안에 20여종이 넘는 많은 판본이 왕실을 비롯하여 전국의 사찰에서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연구의 대상 자료인 「六經合部」는 6종의 주요 불교경전 중 핵심 부분을 한 책으로 편성하여 수행자나 신자들이 항상 수지하고 독송에 편리하도록

1) 宋日基, “高山 花岩寺와 成達生,”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20주년기념학술논문집』, 5(1999), 31-71 참조.

2) 「世宗實錄」 9년(1420) 9월 24일.

우리나라에서만 간행된 불경이다. 이처럼 이 책은 6종의 불경을 합부하여 일반적으로 ‘六經合部’라고 관용적으로 통용되어 왔기 때문에 현행 유통본에는 공식적인 서명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고서목록에는 통상 첫 번째로 수록된 『金剛般若波羅密經』을 목록의 표제어로 기입하고 있어 정작 별도의 단행본 『금강경』과 혼재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처럼 ‘六經合部’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편성되어 간행된 불경으로 중국과 일본 등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불경으로 매우 주목된다 하겠다. 특히 이 책은 수지 독송하기에 편리하여 당시 독자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어 그 판본의 수량도 50여종에 이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판본을 대상으로 서지학적 연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전국의 사찰과 도서관에 산재하고 있는 판본을 조사하여 그 전체적 현황을 파악하여 현전본의 전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판본 현황을 토대로 시대별·지역별·계통별 특징을 분석하여 판본 상에 어떠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끝으로 이들 판본의 개판에 각수(刻手) 또는 간선(幹善) 등의 역할로 참여한 인물들을 분석하여 이들이 불서 개판(開板) 활동에 어떠한 활동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六經合部』의 編成 및 內容

2.1 편찬배경

육경합부의 편성에는 이의 필요성을 느낀 신현(信玄) 스님과 그의 요청을 받아서 육경을 서사한 성달생(成達生)에 의해서 1424년에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되었다. 이때 개판된 안심사본에는 이러한 편성 및 간행에 관한 전말을 밝히고 있는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발문은 바로 성달생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성달생(成達生)은 조선전기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판된 불경

의 판서자로 활약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가 쓴 발문을 통해서 본서가 편성된 일련의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성달생(成達生)에게 필서(筆書)를 요청한 사람은 도인 신현(信玄)으로 그는 성달생에게 금강경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금강경은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해 설해진 경전이며, 대승에 이르는 첩경이라고 말했다.³⁾ 이는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이 금강경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보살의 서원과 발심과 같은 마음으로 필서를 요청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발문을 통해 금강경은 본래 최사립(崔斯立)이 필서하여 간행한 판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⁴⁾ 현전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사립은 고려 말에서 조선전기애 활동한 인물로 중종에서 명종사이에 실록에 보이고 있으나 그의 행적은 자세하지 않다. 그의 부친 최수황(?-1301)은 고려사 열전에 기록이 보이는데, 이에 따르면 최수황은 명주(溟州) 사람으로 벼슬이 첨의찬성사(僉議贊成事) 치사(致仕)에까지 이르렀고 불교를 신봉했던 인물이다. 아들인 최사립에 대한 기록으로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썼으며 관직이 선부전서(選部典書)에까지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다. 고려 충렬왕대에 중서사인(中書舍人)의 벼슬을 하여 사인(舍人) 최사립으로 불리워졌다. 동국여지승람에는 개성의 천수사(天壽寺) 옛터를 기록하며, 천수문(天壽門)을 배경으로 지은 최사립의 칠언절구의 시를 소개하였다. 최사립의 이 시에 대해 홍언박(洪彦博)을 비롯한 여러 문인들이 화답하고 있어, 그는 문장에 뛰어났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⁵⁾

셋째, 跋文의 내용에는 최사립이 필서한 금강경 판본이 성달생 필서 당시인 1420년대까지 전존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성달생(成達生) 당시에 와서는 이 판본은 오래되고 닳아 보기 어려웠다. 이에 도인 신현(信玄)의 요청과 성달생의 수락

3) 道人信玄 與余有舊 一日來告余曰 金剛經者 大乘捷徑也 經云爲發大乘者說 爲發寂上乘者說 凡入佛知見者 莫不由此而進 故世之人尤爲崇信 而在初學亦必先誦.

4) 昔崔舍人斯立所書板本 歲久字剝 學者病焉.

5) 최사립에 관한 행적이 주로 중종과 명종대에 집중되고 있어 실록에 보이는 인물과 성달생의 발문에 나타난 인물이 동일한 사람인지는 의문이다.

으로 금강경의 필서가 이루어졌다.⁶⁾

넷째, 성달생(成達生)은 금강경을 필사하면서 당시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던 다섯 경전을 병서(并書)함을 밝혔다. 애초 도인 신현(信玄)은 금강경의 필사만을 요청한 것으로 추측되며, 여기에 다섯 경전을 금강경과 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간행하고자 한 것은 성달생(成達生)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상 사람들이 숭상하여 합부하였다는 경전은 아미타경,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 대불정수능엄신주, 관세음보살예문이다. 금강경을 비롯한 여섯 경전을 한 부의 책으로 간행한 동기는 관람(觀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⁷⁾ 또한 이들 여섯 경전을 한 책으로 묶기 위해 분량을 조절하였다.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계환의 주석 부분을 제외한 경문 부분만 수록하였고, 보현행원품은 40권 정원본을 수록하되 주석 부분을 제외하였다. 즉, 방대한 분량을 피하되, 당시 유행했던 대승경전을 모두 수록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와 같이 성달생(成達生)이 작성한 발문에서는 금강경만을 지칭하여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과 최상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위한 경전으로 말하고 있지만, 금강경과 합부된 다른 제 경전들 역시 대승불교의 근본 가르침과 관련된 경전들이다. 대승경전은 중생의 기도를 들어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혹은 부처의 보리행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방대한 분량을 감당할 수 있는 학식이 뛰어난 승려 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대승경전의 핵심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六經合部」를 편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달생(成達生)은 발문에서 6종의 불경을 ‘合爲一部’하여 간행하게 되었다고만 밝히고, 이 합부경전의 서명을 「六經合部」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1470년 인수대비의 발원으로 불경을 간행하면서 당시 인출된 불경의 말미에 김수온(金守溫)이 쓴 발문을 초주갑인자로 인쇄하여 첨부하였는데, 그 발문의 내용에 ‘六經合部六百件’이란 내용이 보이고 있다.⁸⁾ 이 기록은 안심사본 간행

6) 歲久字刊 學者病焉 今幸閑暇盍書一本 以貽學者乎.

7) 并書今人所崇 阿彌陀經 普賢行願品 觀世音菩薩普門品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合爲一部 以便觀覽.

8) 永濟庵板은 1440년에 開板되었는데, 이후 仁粹大妃의 발원으로 1472년에 600건에 이르는

이래 일반적 육경합부로 통칭되어왔기 때문에 김수온이 발문을 쓰면서 그대로 반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육경합부의 편성과 간행에는 신현(信玄)의 발원과 성달생(成達生)이 6종의 불경을 필서(筆書)해 넘으로서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에서 1424년에 개판되었다. 성달생이 필서 간행한 6종의 불경의 내용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2.2 내용개요

성달생(成達生)이 필서하여 편성한 「六經合部」는 안심사본의 순서에 따르면,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佛說阿彌陀經」의 6경의 대승경전을 한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첫째, 「金剛般若波羅密經」(이하 금강경)은 반야계열의 주요 경전으로 대장경의 반야부 600부 가운데 577권에 해당한다. 이 경은 공혜(空慧)로서 체(體)를 삼고 일체의 무아(無我)의 이치를 말한 것을 요지로 한다. 중국의 선종에 금강경을 특히 중시하였는데, 이는 선가에서 중시하는 선 수행에 필요한 선지(禪旨)가 녹아 있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도 소의경전으로 지목하였다. 육경합부에 수록된 금강경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역본에 후대 양나라 소명 태자가 32분으로 분장한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행(單行)되는 금강경의 내용 전체를 포괄하되, 주석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오로지 경문만이 수록되어 있다. 분량은 24장 반 가량이며, 판식의 행격은 대체로 8행 17자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이하 보현행원품)은 당나라 삼장반야(三藏般若)가 화엄경의 입법계품만을 번역한 40권 화엄경(정원

불경을 대량으로 後刷하면서 金守溫의 발문을 초주갑인자로 인출하여 권말에 첨부 장책한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본) 40품 중에 마지막 품인 제40품에 해당된다. 입법계품은 보리심을 일으킨 선재동자가 보살행에 이르는 길을 묻고자 53 선지식을 순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량은 23장이며, 판식의 행격은 대체로 8행 17자이다.

셋째, 『佛說阿彌陀經』(이하 아미타경)은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아미타불에 의한 중생 구원을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 무량수경, 관무량수경과 더불어 정토 3부 경전으로 불린다. 이 경의 내용은 극락세계의 아름다운 모습과 삼악도가 없음을 설하고, 이곳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의 무량함과 그곳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으며, 만약 사람들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1일 내지 7일 동안 일심으로 염불하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의 영접을 받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음을 설하고 있다. 분량은 10장 가량이며, 판식의 행격은 대체로 8행 17자이다.

넷째,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이하 관세음보살문품)은 묘법연화경의 전체 28품 중 25번째인 <觀世音菩薩普門品>에 해당된다. <觀世音菩薩普門品>은 관세음보살의 위력을 설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을 담아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가짐을 설하였다. 단행되는 <觀世音菩薩普門品>의 권수제는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第二十五’인 반면, 육경합부에 수록된 권수제는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이다. ‘第二十五’라는 묘법연화경 전체에서의 품차(品次)가 육경합부의 경명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육경합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수록 범위를 살펴보면, 경문(經文)의 정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록하였고, 계환(戒環)이 주석한 부분은 생략되었다. 따라서 분량은 8장 가량으로 전체 총 글자 수는 2,062자이며, 판식의 행격은 대체로 8행 17자이다.

다섯째, 『大佛頂首楞嚴神呪』(이하 능엄신주)는 대부분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제7권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7권은 해탈의 문에 들어가는 주문인 능엄다라니를 설하고 그 공덕을 밝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大佛頂首楞嚴神呪』는 능엄경 권7의 내용 중 주문(呪文)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록하여 도표로 나타내고, 권수의 1면 남짓한 부분은 능엄경 권3의 말미의

일부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세조실록에는 중문에서 승려의 자격을 공인해줄 때 금강경, 심경, 살달타를 능히 외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⁹⁾ 여기에서 살달타는 능엄경을 가리키며, 이는 당시 승문에서는 능엄다라니를 외우는 관행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여섯째, 『觀世音菩薩禮文』은 예참의식에 사용되었던 예문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관음예문이란 좌운 준식(遵式, 964-1032)의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三昧儀』에서 처음 볼 수 있다. 이 懺儀의 연기에 관음예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가 잘 설명되어 있다. 천태 지의(智顗, 538-597)의 국청 백록에 의지하고, 『請觀世音菩薩消伏毒害陀羅尼三昧儀』에 대하여 지의가 주석 강설한 청관음경소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틀을 갖추면서 정리되었다.¹⁰⁾ 분량은 대략 16장 가량이다. 행격은 대체로 8행 15자이다.

3. 「六經合部」의 板本 現況

이 책은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1424년에 처음으로 개판된 이래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경쟁적으로 간행하여 현재에도 많은 판본이 전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六經合部」의 판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각 기관과 개인의 소장 고서 목록 등 서지목록을 조사하고 2차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 도서관 및 사찰 소장본을 대상으로 실물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목록을 통해 49종에 이르는 「六經合部」 간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 「六經合部」가 초학자와 불교인들이 수지 독송한 불경임을 감안할 때 좀 더 많은 판본이 발굴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런데 49종의 판본을 조사해 본 결과 대체로 임란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개판된 판본에서 일정한 변화,

9) 세조실록 7년(1461) 3월 9일. 公賤으로 승려가 된 자는 宗門에 고하고 중문에서는 金剛經, 心經, 薩怛陀를 능히 외고 승행이 있는 자를 가려서 ... (후략).

10) 이선이, “〈백의해〉의 관음수행관 고찰,” 『불교연구』 제24호(2006).

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란 이후의 판본에서 변용이 일어나서 ‘六經’ 중에 주로 <금강경> 하나의 경전만을 대상으로 선정 간행되는 현상을 보이는 17세기 후반 판본은 제외하고, 1660년 판본까지 총 30종의 판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六經合部』의 판본 현황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현전본 「六經合部」 판본 현황

번호	간행년	간행처	간행기록
1	1424	安心寺	永樂甲辰六月 日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2	1431	미상	宣德六年辛亥臘 月 日 殊菴書
3	1438	正林寺	江原道蔚珍正林寺開板留板眞觀寺
4	1440	永濟菴	正統五年庚申 華岳山永濟庵開板
5	1445	君子寺	智異山 君子寺開板 正統十一年仲春上旬曹溪老衲靈谷跋
6	1449	金沙寺	留後所(開城)金沙寺開板 時正統十四年己巳正月 日 比丘克敬謹跋
7	1457	圓岩寺	全羅道全州地圓岩寺開板 景泰元年庚午於始丁丑四月 日 畢功
8	1459	미상	天順三年己卯七月 日
9	1460	禪宗	天順四年庚辰 禪宗開板
10	[1460]	中臺寺	全羅道鎭安地中臺寺開刊
11	1462	見佛菴	慶尙道晉州地金龍山見佛庵開板 天順六年壬午六月 日
12	1462	花岩寺	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 天順壬午七月 日 重刻
13	1464	天龍寺	天順八年甲申六月 慶尙道慶州高伍山天龍寺重刊
14	1465	미상	成化乙酉六月 日
15	1465	圓覺寺	成化元年乙酉四月 初八日 圓覺寺
16	[1465]	校書館	-
17	1466	天龍寺	東都南高位山天龍寺 成化二年丙戌七秋月 上嶺山人清寒跋
18	1467	金藏庵	成化三年丁亥 忠清道保寧烏栖山金藏庵開板
19	1469	靑龍寺	成化五年己丑五月 日 京畿安城靑龍寺開板
20	1488	花岩寺	弘治元年戊申四月 日 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
21	[1489]	慈悲嶺寺	黃海道瑞興地 慈悲嶺寺開板
22	1489	證心寺	弘治己酉六月 日 瑞石山證心寺開板
23	1491	龍潭寺	弘治四年三月 日 尙州地龍潭寺開板
24	1491	澄光寺	弘治四辛亥六月 日 全羅道樂安澄光寺開板
25	1555	深原寺	嘉靖三十四年黃海道黃州土西面李順卜家開板 慈悲山深原寺
26	1558	廣德寺	嘉靖戊午暮春己未日 清洪道天安地華山廣德寺開刊
27	1646	大興寺	順治三年丙戌 十二月 日 全羅道海南縣 頭輪山大興寺重刊
28	1660	澄光寺	順治十七年庚子正月 全羅道金華山澄光寺開刊
29	[15C]	미상	-
30	[15C]	미상	弘治元年戊申(1488)4月 日(墨書)

위의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크게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구분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중 목판본은 29종이었고 금속활자본은 1종으로 파악되었다.

3.1 목판본

3.1.1 安心寺의 原刊本 開板

3.1.1.1 書寫者 成達生

육경합부의 최초 서사자로 알려져 있는 성달생(成達生)의 자는 효백(孝伯),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아버지는 조선건국에 공이 있어 태조로부터 원종공신 녹권은 받고 ‘開城留後’·‘寶文閣大提學’ 지낸 성석린(成石璘)이다. 부친은 공양왕 즉위 이후로 代言(承旨)로 활동할 무렵에 왕명의 서경(書經)의 <無逸篇>을 선서(善書)하여 상진하라는 주문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¹¹⁾ 그의 부친 또한 일찍이 명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씨 문중에는 대대로 善書者가 나와 하나 둘이 아니었으며,¹²⁾ 그 또한 이러한 성씨 가문의 영향을 받은 까닭에 이미 어려서부터 글씨를 잘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90년(공양왕 2) 생원시에 급제하고 父蔭으로 벼슬에 나갔다.

그는 세종의 안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종 26년(1444)에 충청도 초수리(椒水里)에 호종(扈從) 하던 중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이에 세종은 특별한 예로 장례를 치르게 하는 한편 사제문(賜際文)을 보내 그의 죽음을 각별히 애도하였다. 이런 까닭에서 인지, 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世宗實錄』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

11) 昌寧成氏桑谷公派譜刊行推進委員會, 昌寧成氏文獻誌, 1985, 367.

12) 父親 石璘을 비롯하여 眞草에 능했던 伯父 石璘은 <演福寺重創碑>(1394書)와 <朝鮮太祖建元陵神道碑>(1411書) 등의 비문을 쓴 필적을 남기고 있으며, 또한 叔父 石珣도 善書者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의 동생 概는 柳公權體를 체득하여 <朝鮮太宗獻陵神道碑>의 碑陰을 쓴바 있어 세조는 그의 筆跡을 널리 방구한 사실도 있다. 이밖에 成三問, 成任, 成侃, 成世昌, 成守琛, 成渾 등도 글씨로 이름난 인물들이다(上揭書, 955-961 參照).

어 있다.¹³⁾ 그는 불심이 돈독하여서 궁중의 주요한 불사에 책임자로 참여하였고, 고산 화암사에 막대한 시재를 하여 불사를 지원하였다. 그의 서체는 부드럽고 예쁜 독특한 서법을 운필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六經合部』 외에도 법화경, 능엄경 등 가장 많은 불경의 판서본(板書本)을 써서 불서의 간행 보시에 기여했다. 그의 아들은 성승(成勝)이며, 증손이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유명한 성삼문(成三問)이다.¹⁴⁾

3.1.1.2 安心寺板의 開板

현존하는 『六經合部』본 중 최고본은 1424년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개판된 판본이다. 안심사(安心寺)는 전라도 고산에 소재하는 사찰로, 신라 638년(선덕여왕 7)에 자장율사(慈藏律師)가 창건하였고, 875년(憲康王 1)에 도선국사(道詵國師)와 고려 말기에 조구(祖丘)가 각각 중창하였다. 이 사찰의 건물은 6.25 동란 때 모두 소실되고 현재는 옛 유적과 소규모의 인법당(因法堂)만이 남아 있다.

조사 대상본인 원각사 소장본에는 권수에 변상은 수록되어 있으나, ‘金剛經啓請, 淨口業眞言, 請八金剛’은 수록되어 있지 않고, 바로 금강경의 본문으로 이어진다. 금강경의 권말에는 권말제 뒤에 ‘般若無盡藏眞言, 金剛心眞言, 補闕眞言’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願我以諸經刻板功德十方世界死生六道一切衆生同歸淨土同見彌陀同聞淨法同化衆生’라는 발원 글귀 뒤에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이라는 간행처가 기재되어 있다. 시주 혹은 공양주로 ‘豊壤郡夫人趙氏’, ‘咸羅郡夫人南宮氏’, ‘故金氏’ 등이 같은 면에 기재되어 있다. 다음 면에 대선사 종해(宗海), 간선으로 참여한 의명(義明), 의준(義俊), 신현(信玄)을 비롯한 승려 71명이 수록되어 있고, 일반인 시주자 44명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관세음보살예문의 권말에는 육경합부를 필서 간행하게 된 동기 등을 밝힌 성달

13) 『世宗實錄』 26년(1437) 4월 10일, 『世宗實錄』 26년(1437) 6월 18일.

14) 송일기, “高山 花岩寺와 成達生,”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20주년기념학술논문집』, 5(1999), 31-71.

생(成達生)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같은 면에 동원(同願)으로 ‘信玄’의 이름을 기재하여 신현이 「六經合部」의 간행에 뜻을 함께 하였음을 드러냈고, 각수로는 성충(尙聰)이 참여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안심사본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佛說阿彌陀經」,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순으로 6종의 불경이 수록되어 있다.

3.1.2 後代 覆刻本

안심사판 이후 간행된 판본은 대부분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판본들이다. 현존하는 판본은 대략 47종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육경합부에 적합한 판본은 원간본인 안심사본을 제외하고 28종으로 파악되었다.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한 판본의 현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후대 복각본의 판본현황

판종	연대	간행지	간행처	비고	조사 대상본
목판본 (28종)	1431	미상	미상	殊菴書	불갑사
	1438	강원 울진	正林寺	慧熙跋文/崔興孝書	동국대
	1440	경기 가평	永濟菴	定菴施財/金守溫跋文(後刷本)	김민영
	1445	경상 함양	君子寺	靈谷跋文/淸源寺住持海悟刊	송일기
	1449	경기 개성	金沙寺	克敬跋文/孝寧大君發願	보림사
	1457	전라 전주	圓岩寺	智罔發願/成達生跋文	보림사
	1459	미상	미상	大化主文惠	개인
	1460	경기 한성	禪宗	黑魚尾本/孝寧大君發願	보림사
	[1460]	전라 진안	中臺寺	洪善施財/刻手宝明/幹善學義	원각사
	1462	경상 진주	見佛庵	幹善宝應	국립도
	1462	전라 고산	花岩寺	韓繼美發願/成達生跋文	김민영
	1464	경상 경주	天龍寺	道人海祥・大禪師竹靑	김민영
	1465	미상	미상	惠雄發願/成達生跋文	동학사
	1465	미상	圓覺寺	黑魚尾本	기림사
	1466	경상 경주	天龍寺	淸寒(金時習?)跋文	공인

판종	연대	간행지	간행처	비고	조사 대상본
목판본 (28종)	1467	충청 보령	金藏庵	孝寧大君發願/忠清道觀察使·保寧縣監/刻手玉暹	관문사
	1469	경기 안성	靑龍寺	化主釋會/安乙富施財	관문사
	1488	전라 고산	花岩寺	化主了罔/刻手性演	상원사
	[1489]	황해 서흥	慈悲嶺寺	同寺刊 <楞嚴經>과 대비	규장각
	1489	전라 광주	證心寺	化主義惠/智愚施財	김민영
	1491	경상 상주	龍潭寺	奉生施財	김민영
	1491	전라 낙안	澄光寺	朴戒林施財/板施主義一	길상사
	1555	황해 황주	深源寺	李順才家施財	송일기
	1558	충청 천안	廣德寺	黑魚尾本	규장각
	1646	전라 해남	大興寺	別座哲儀	불갑사
	1660	전라 낙안	澄光寺	別座幹善明淨	송광사
	[15C]	미상	미상	大黑口·黑魚尾本	불갑사
	[15C]	미상	미상	比丘晶一	자비사

안심사본을 저본으로 후대 복각 간행된 목판본은 모두 28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구분되었다. 후대 복각본은 대부분 원간본이 간행된 시기와 같은 세기인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초기 간본으로 1431년 판본은 불갑사 석가삼존상과 16나한상에서 발견된 판본으로 ‘殊菴書’라는 기록만 있을 뿐 간행사항은 미상이다. 간기 아래 ‘殊菴書’라고 적혀있어서 수암에 의해 판서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암은 『六道普說』의 판서자로 1432년과 1490년, 2개 판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판서자 수암이 과연 동일인물인지는 60년의 시간차로 인해 단정할 수 없지만, 1431년 미상본 『六經合部』에서 나타나는 수암과 1432년 일월사본 『六道普說』의 판서자 수암은 불과 1년의 시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일인물로 생각된다.¹⁵⁾

정림사본은 ‘安貴興·林鳥’의 발원으로 1438년 간행되었는데, 이 책에는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佛說阿彌陀經』 2경을 제외한 4경이 합부되어 있

15) 김은진, “蒙山 德異 편찬의 六道普說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2).

다. 금강경 뒤에 혜희(慧熙)의 발문이 붙어 있는데, 조선전기 명필가의 한 사람인 최흥효(崔興孝)에 의해 판서되었다. 1440년 영제암본은 定菴의 주도로 판각되었으며, 후에 1472년 인수대비가 대대적으로 인출했는데 이는 1472년 간행본에서 금강경 권말 중 ‘正統五年康申 華岳山永濟庵開板 施主定菴’을 통해 화악산 영제암본을 후쇄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인수대비 발원본은 김수온(1410-1481)의 발문이 갑인소자(甲寅小字)로 인출되어 권말에 수록되어 있다.

1445년 군자사본은 영곡(靈谷)에 의해 발문이 작성되었고, 간기면에 ‘淸源寺住持海悟刊’이라 기록되어 있어서 청원사 주지 해오(海悟)에 의해 군자사에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해오는 조선시대 전기를 대표하는 각수로 변상도 전문 각수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1449년 금사사에서 개판된 판본은 효령대군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다. 효령대군은 1460년 선종개판에도 참여했다. 발원자가 왕실인 판본답게 80여명의 시주자가 참여했다. 금사사 판본의 변상도의 제목은 金剛行願圓通普門彌陀諸449經變相이다. 좌측 하단에 ‘金戒信刀’라는 표시가 있다. 변상도 안에 각수명을 기록한 경우 대체로 변상도만을 전문적으로 판각한 경우가 많은데, 김계신(金戒信)은 궁중소속 각수로서 1448년 효령대군과 안평대군이 발원한 법화경에도 각수로 참여한 사실이 보이고 있다.¹⁶⁾ 금사사본의 발문은 비구 극경(克敬)이 작성하였는데, 관세음보살예문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원암사본은 지경(智岡)의 발원으로 1457년 전라도 전주의 원암사에서 간행되었다. 관세음보살예문 말미에 수록된 발문은 1424년 안심사 판본의 발문과 같으나, 도인 ‘信玄’의 이름 대신 ‘佛明’의 이름이 기재되었으며, 도인 불명을 지칭하는 맥락에서는 ‘玄師’를 ‘明師’로 바꾸었다.¹⁷⁾ 1424년 안심사본과 비교했을 때 번각을 매우 정교하게 한 것을 볼 수 있다. 6개의 경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변상도가 있다. 간행에 참여한 각수는 성능(性能)과 달존(達存) 등이다. 그리고 1459년에

16) 박도화, “조선시대 불교판화의 양식과 각수,” 『강좌미술사』 29(2007), 192.

17) 1457년 圓岩寺本 跋文. 道人佛明 與余有舊. 一日來告余曰 金剛經者大乘捷徑也. 經云 爲發大乘者說 爲發寂上乘者說. 凡入佛知見者 莫不由此而進 故世之人尤爲崇信 而在初學亦必先誦. 昔崔舍人斯立所書板本 歲久字剝 學者病焉. 今幸閑暇盍書一本以貽學者乎. 余辭曰 作字未工放筆 亦久 雖不得無心 其無筆力 何玄師固請不已 … (후략).

개관처 미상본의 각수 성오(性悟)와 민은(敏崙)은 1462년 화암사본의 개관에도 참여했다. 현재까지 참여자 분석 중 각수로서 유일하게 두 번의 참여가 있었다. 간선으로 참여한 성안(性安)이란 인물은 1469년 청용사판에는 직접 각수로 참여한 것이 보인다. 관세음보살예문말미에 간기가 있으며 각수 3명, 간선 1명, 대화주 1명이 참여하였다.

한편 선종 본사에서 1460년에 개관된 판본은 조사된 30종의 판본 중 최초로 나타나는 흑어미본이다. 권말에 왕실의 안녕과 수복을 기원하는 봉축문 ‘奉爲主上殿下壽萬世王妃殿下壽齊年世子郎下壽千秋’ 다음에 효령대군과 영웅대군(永膺大君)이 나란히 기재되었고, 한 자 반을 내려 ‘河城尉 鄭顯祖, 慶根氏 玉非世尊’이 기재되어 있다. 금강경 말미에는 왕실에서 주도한 불사에 여러 차례 참여한 바 있는 윤찬(尹贊)을 비롯하여,¹⁸⁾ 상장(上將), 호군(護軍), 사직(司直), 사정(司正) 등의 관직명과 함께 시주자 1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어 일반인 시주자 115명의 이름과 화주(化主) 설운(雪雲)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아미타경 말미에는 호군(護軍) 김려산(金麗山)을 비롯한 일반인 시주자 27명의 이름이 있고, 각수 도운(道雲), 화주 설운의 이름이 있다. 관세음보살예문 말미에는 오원충(吳元忠)을 비롯한 128명의 일반인 시주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1460년에 개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대사본은 조유선(趙由瑱)의 발원으로 간행되었다. 각수 보명(寶明)은 중대사본 장수경에도 각수로 참여하여 중대사본에서 활동한 전문 각수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홍선(洪善)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각수 보명(寶明) 간선 학의(學義)가 기록되어 있다. 1462년 견불암본은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이 합부되어 있고 앞장에 변상도가 수록되어 있다. 각수 성민(性敏)과 간선 보응(寶應)이 기록되어 있다. 1462년 견불암본의 각수 ‘性敏’은 1490년 자비령사에서 개관한 『六道普說』의 각수로도 참여했다. 같은 해 개관한 1462년 화암사 판본은 1424년 안심사 판본에 수록된 성달생의 발문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고

18) 『世祖實錄』 3년(1457) 6월 26일, 『睿宗實錄』 1년(1469) 6월 18일, 『成宗實錄』 3년(1472) 2월 7일.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의 이름만 고쳐 새겨져 있을 뿐, 그밖에는 전체적으로 복각의 특징이 여실히 보이고 있다.¹⁹⁾ 1462년 화암사 판본은 한계미(韓繼美, 1421-1471)의 주도로 간행되었다. 한계희(韓繼禧), 한계선(韓繼善), 한계순(韓繼淳)은 한계미의 형제들로서, 이들의 이름은 간행 참여자의 서두에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성달생 발문아래로 판수 성오(性悟)와 민은(敏攄)이 보이고 있다.

천용사에서는 2회의 개판이 있었다. 1464년 천용사본은 6종의 경전이 모두 합철되어 있으며 금강경 뒤에 간기가 위치해 있고 참여자가 기록되어 있다. 판각에는 1449년 금사사에서 간선으로 참여한 정심(正心)이 각수로 참여했다. 또한 1466년은 천용사판은 어떤 연유인지 불명이나 1464년 동일 사찰에서 간행했던 판본을 저본으로 다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成化2年丙戌(1466)秋7月上澣山人清寒跋’ 간행기록에서 ‘清寒’이 주목된다. 조선전기의 문신이던 김시습의 호가 ‘清寒子’였고, 세조때 내불당에서 교정일을 맡아보기도 했던 그의 호불 행적으로 보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1465년본은 개판처가 미상으로 동학사에만 소장된 유일본인데, 혜웅(惠雄)의 발원으로 이루어졌다. <觀世音菩薩禮文> 뒤에 성달생의 발문이 실려 있는데, 안심사본의 유물로 보인다. 왕실의 안녕과 수복을 기원하는 발문문 ‘主上殿下壽萬世’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면에 각수 내의(乃義)와 성충(性聰)이 기재되어 있다. 다른 1465년 원각사본은 기림사에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다. 아미타경 말미에 위치한 간행기록에 ‘成化元年乙酉四月 初八日 圓覺寺’가 적혀있다. 판심에 흑어미가 보이고 있어 특색이 있다. 1467년 충청 보령 금장암에서 간행된 판본은 “孝寧大君, 永膺大君, 臨瀛大君, 月山君, 者山君, 永順君”의 발원으로 간행되었다. 간기와 같은 면에 ‘忠淸道觀察使 宋文林과 保寧縣監 崔塙’이 기재되어 지방관원의 지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469년에 청용사본은 안을복(安乙福)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앞장에 변상도가 실려있고 간기뒤에 각수 성안(性安), 사운(斯允), 성철(性哲)을 비롯하여 화주 석회(釋會)와 학수(學修)가 기록되어 있다.

19) 宋日基, “高山 花岩寺와 成達生,”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20주년기념학술논문집』 제5집(1999), 51-52.

전라도 고산 화엄사에서도 2회의 개관이 있었다. 1488년 화암사본은 1462년에 간행된 판본을 바탕으로 재차 복각 간행하였다. 판심의 중간 부분에 판심제와 장수 표시가 보이고 있는데 흡사한 특징을 보인다. 1488년 화암사 간행본의 발문은 안심사(1424년) 판본에 수록된 성달생이 쓴 발문을 요약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1489년 자비령사에서 개관된 고려대 소장 능엄경을 분석한 결과 자비령사 개관 『六經合部』와 시주자 ‘文彥石, 金容實’ 등이 동일하게 보이고 있어서 자비령사의 『六經合部』 간행년을 동일하게 1489년으로 추정하였다.²⁰⁾ 1489년 증심사본은 김민영 소장 판본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금강경 뒤에 간기가 있으며 말미에 각수 ‘洪道·省安·明印·林倣’이 참여하였고 화주 의혜(義惠)와 대시주 지우(智愚) 등이 조연하여 개관되었다. 1491년 용담사본은 김민영 소장본이 유일한데, 여기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 『大佛頂首楞嚴神呪』 등 2종의 경전만이 합부되어 있다. 앞장에 변상도가 있고 간기뒤에 각수 신우(信牛)와 대시주 봉생(奉生)을 비롯한 참여자가 기록되어 있다.

징광사본은 길상사에만 유일하게 소장되어 있는데, 1491년에 전라도 낙안의 징광사에서 개관되었다. 징광사본은 6종의 경전이 모두 합부되어 있으나 변상도는 없다. 간기 면에 ‘主上殿下壽萬歲’란 발원문이 간략하게 적혀있고 그 옆에 각수 신오(信悟)를 비롯하여 ‘大施主前司正 朴戒林, 大禪師 能惠, 供養主 義明·印奇’가 기록되어 있다. 1555년 심원사본은 다른 판본에 실린 변상도와는 다른 <菩薩圖>가 실려 있어서 다른 판본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 관세음보살문품과 관세음보살예문이 없는 사부합경이고 간기 면에는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을 적어 왕실을 축원했다. 또한 대시주로 ‘李順才家’, 각수 ‘罔雄, 罔菴, 守衍, 惠衍’ 등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다. 1558년 광덕사본은 『金剛經』 뒤에 간기가 위치하고, 흑여미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646년 대흥사본은 간기 면에 33명의 참여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각수가 5명으로 비교적 많은 각수가 참여했다. 참여자 명단에 별좌 철의(哲儀)라고 적혀있다. 1660년 징광사본은 앞장에 변상도가 실려 있고, 6종의 경전이 모두 합부되어 있다. 금강경 뒤에 간기가 위치하고

20) 弘治2年己酉(1489) 8월20일.

있고 전체적으로는 무어미지만 참여자가 적혀있는 장은 대흑구와 흑어미가 보인다. 각수로 「戒雄・海玉・碩行・敬圭・清稔」이 참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15세기에 간행됐을 것을 추정되는 불갑사 소장 미상본은 판심에 상하대흑구 내향 흑어미가 보여서 다른 판본과 분명하게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15세기에 간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비사 소장 미상본은 표지에 묵서로 「六經合部」가 묵서되어 있고 뒷장에 역시 묵서로 「弘治元年戊申月日化主了罔比丘」와 그 옆에 「刻手 性演・閻修」라고 적혀 있는데, 1488년 화엄사본의 간행기록을 전제한 것이다.

이상 28종의 안심사 후대 복각본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흑어미 또는 대흑구가 있는 1460년 선종본, 1465년 원각사본, 1558년 광덕사본, 15세기 불갑사 장본을 제외한 판본에서는 판식의 특징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3.2 활자본

3.2.1 乙酉字 鑄造

금속활자 을유자(乙酉字)는 1465년 정난종(鄭蘭宗)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동활자로, 같은 해 원각사(圓覺寺)를 준공하고 바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찍어내기 위해 주조한 것이다. 을유자의 주조(鑄造)에 대해서는 「慵齋叢話」와 김종직(金宗直)의 「新鑄字跋」에 언급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자체(字體)가 단정치 않다고 혹평하면서 쓰기를 꺼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을유자의 주조 목적이 불경을 찍기 위해 만든 활자이기 때문에 유신들이 더욱 싫어했던 듯하다. 따라서 그 인본으로는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을 비롯하여 「碧巖經」, 「六經合部」, 「兵將說」, 「唐書」, 「文翰類選大成」 등이 겨우 전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21)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323.

3.2.2 乙酉字本

육경합부 중 금속활자본은 1465년 인출된 을유자본 1종이 조사되었다. 김민영 소장본을 비롯하여 계명대와 자비사 등 5부 정도가 국내에 현존하고 있다. 이는 세조 때의 불서간인 사업에 의해 활자로 찍어진 많은 불교서적 중 하나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중앙기관에서 인쇄를 담당하는 교서관에서 이루어진 이 판본은 중앙 관판본의 특징인 판각이 정교하고 인쇄상태가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존본 『六經合部』 을유자본은 지질과 먹색이 대부분 불량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을유자가 20년 밖에 사용되지 않고 1484년 갑진자를 새로 주조할 때 녹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 인본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을유자본에는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행자수는 8행 17자이나 『觀世音菩薩禮文』은 14행 17자가 배자되어 있고 흑어미의 모습이 보인다.

4. 『六經合部』의 板本 分析

연구대상 판본은 후대 변용본을 제외한 30종을 대상으로 시대별, 지역별, 계통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시대 및 지역 분석을 통해 전국적으로 어떠한 간행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각 판본의 판식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판본의 계통을 파악하였다.

4.1 시대별 분석

1424년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에서 『六經合部』가 간행된 이래 17세기 중반까지 전국의 사찰에서 개판된 30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크게 조선전기 와 조선후기로 구분하고, 또한 조대별로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현전본 「六經合部」의 시대별 분석

시기구분				간행사항		
시대	조대	종수	비율	연대	간행지	간행처
朝鮮前期 (28종 93.3%)	世宗代	6종	20%	1424	全羅 高山	安心寺
				1431	미상	미상
				1438	江原 蔚珍	正林寺
				1440	京畿 加平	永濟菴
				1445	慶尙 咸陽	君子寺
				1449	京畿 開城	金沙寺
	世祖代	12종	40%	1457	全羅 全州	圓岩寺
				1459	미상	미상
				1460	京畿 漢城	禪宗
				1460	全羅 鎭安	中臺寺
				1462	慶尙 晉州	見佛庵
				1462	全羅 高山	花岩寺
				1464	慶尙 慶州	天龍寺
				1465	미상	미상
				1465	미상	圓覺寺
				1465	京畿 漢城	校書館
				1466	慶尙 慶州	天龍寺
				1467	忠淸 保寧	金藏庵
	睿宗代	1종	3.3%	1469	京畿 安城	靑龍寺
	成宗代	7종	23.3%	1488	全羅 高山	花岩寺
				1489	黃海 瑞興	慈悲嶺寺
				1489	全羅 光州	證心寺
				1491	慶尙 尙州	龍潭寺
				1491	全羅 樂安	澄光寺
				15C	미상	미상
	明宗代	2종	6.7%	15C	미상	미상
				1555	黃海 黃州	深源寺
				1558	忠淸 天安	廣德寺
朝鮮後期 (2종 6.7%)	仁祖代	1종	3.3%	1646	全羅 海南	大興寺
	顯宗代	1종	3.3%	1660	全羅 樂安	澄光寺

이상의 시기별 분석을 통해서 1646년 대홍사본과 1660년 정광사본 2종을 제외하면 모두 조선전기 즉, 임진왜란 이전인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²²⁾ 이를 간행 비율로 환산해 볼 때 세조대에 전체 『六經合部』 판본의 40%가 개판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조는 이전 왕들이 불교신앙심이 있어도 개인적인 활동에 그쳤던 것과는 달리 유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교 행사와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교서적을 간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호불 정책을 펼쳤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5세기 판본 중 3종이 왕실의 발원으로 이루어져 불경의 간행에 왕실이 주체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세종대와 성종대에 개판된 판본의 비율도 20%를 상회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조선전기에 93%를 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우 광범위하게 유통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조선전기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된 이유는 이 책이 대승불경의 대표적인 6경의 핵심 내용만을 편성하여 휴대와 독송에 편리를 도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2 지역별 분석

전라도 안심사에서 처음으로 개판된 판본을 비롯하여 경상도 등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개판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 30종을 경상과 전라도 지역을 비롯하여 강원, 경기, 충청, 황해지역으로 구분하여 분류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22) 일반적으로 조선은 ‘崇儒抑佛’ 정책을 표방하여 조선 전기에는 불교전적의 간행이 미비하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비록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리산 지역의 경우에서도 경전류 간행이 활발했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刊行 佛書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9)).

<표 4> 현전본 「六經合部」의 지역별 간행 분석

지역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황해	미상
판본	1438 正林寺	1440 永濟菴 1449 金沙寺 1460 禪宗 [1465] 校書館 1469 靑龍寺	1445 君子寺 1462 見佛菴 1464 天龍寺 1466 天龍寺 1491 龍潭寺	1424 安心寺 1457 圓岩寺 [1460] 中臺寺 1462 花岩寺 1488 花岩寺 1489 證心寺 1491 澄光寺 1646 大興寺 1660 澄光寺	1467 金藏庵 1558 廣德寺	1489 慈悲嶺寺 1555 深原寺	15C 15C 1431 1459 1465 1465
	종수	1	5	5	9	2	6
	비율	3.3%	16.7%	16.7%	30%	6.6%	20.0%

조사 판본 30종 중 9종이 전라도에서 개판되어 전체 30%로 비율로 가장 많이 개판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강원도 1회, 경기도와 경상도가 각 5회, 충청도와 황해도가 각 2회씩 개판된 사실을 통해 비록 간행횟수의 편차는 있으나, 전국적으로 간행 유통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비록 사찰수가 경상도보다 적은 전라도에서 개판된 횟수가 가장 많은 사실은 특이한 현상으로 이해된다. 다만 「六經合部」의 판본이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처음으로 개판된 이후 고산 화암사와 낙안 징광사에서 2회나 간행되는 등 전라도 지역에서 끊임없이 개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역북정책 아래 있었다고는 하나 수지와 독송에 편리한 점이 전국적으로 수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3 계통분석

판본의 계통을 분석하는 방법은 판식의 형태적 특징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판식의 특징에는 일차적으로 행자수와 판심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여야 한다. 그런데 『六經合部』는 30종의 많은 판본이 행자수가 동일하여 그 계통을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다만 판심에 약간의 상이한 특징이 보이고 있다. 판심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 판본에 판심의 상하에 흑어미(黑魚尾)가 보이고 있어 이 흑어미의 유무에 따라 계통을 구분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현존본 『六經合部』 판본의 계통별 분석

계통	간행년도	간행지	종수	비율
무어미계	1424	全羅道 高山 安心寺	26	86.7%
	1431	未詳		
	1438	江原道 蔚珍 正林寺		
	1440	京畿道 加平 永濟菴		
	1445	慶尙道 咸陽 君子寺		
	1449	京畿道 開城 金沙寺		
	1457	全羅道 全州 圓岩寺		
	1459	未詳		
	[1460]	全羅道 鎭安 中臺寺		
	1462	慶尙道 晉州 見佛菴		
	1462	全羅道 高山 花岩寺		
	1464	慶尙道 慶州 天龍寺		
	1465	未詳		
	[1465]	京畿道 漢城 校書館		
	1466	慶尙道 慶州 天龍寺		
	1467	忠清道 保寧 金藏庵		
	1469	京畿道 安城 靑龍寺		
	1488	全羅道 高山 花岩寺		
	[1489]	黃海道 瑞興 慈悲嶺寺		
	1489	全羅道 光州 證心寺		
	1491	慶尙道 尙州 龍潭寺		
	1491	全羅道 樂安 澄光寺		

계통	간행년도	간행지	종수	비율
무어미계	1555	黃海道 黃州 深原寺	26	86.7%
	1646	全羅道 海南 大興寺		
	1660	全羅道 樂安 澄光寺		
	15C	未詳		
흑어미계	1460	京畿道 漢城 禪宗	4	13.3%
	1465	圓覺寺		
	1558	忠清道 天安 廣德寺		
	15C	未詳		
계			30	

조사한 30종의 「六經合部」 판본을 판식 중 변란과 행자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30종 모두 사주단변과 8행 17자로 나타나서 비교적 단순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모두 동일한 계통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부 선종본 등 4종의 판본에서 흑어미가 나타나고 있어 형태상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30종의 판본 중 흑어미가 보이는 판본은 1460년 선종본과 1465년 원각사본, 1558년 광덕사본, 15C 미상본 등 4종이며,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26종이 모두 판심에 어미가 없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고려 판본의 유습이 조선 전기 판본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5. 刊行 參與者 分析

간행 참여자 분석을 통해 간행 불사의 성격을 파악하거나 미상본 판본의 시기 추정, 간행에 참여한 승려들의 교류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간행에 참여한 역할에 따라 조연자와 실무자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실무자 중 각수와 조연자 중 간선과 화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조선 전기 활발하게 간행된 「六經合部」는 판본 간행 기록을 바탕으로 간행 참여자들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사찰의 간행활동과 교류 양상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六經合部」의 개판에 참여한 인물들

분석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작성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현전본 「六經合部」開板者 분석

구분			간행사항		開板者	
순서	연대	간행지	간행처	刻手	幹善	化主
1	1424	전라 고산	安心寺	尙聰	義俊, 信玄	-
2	1431	미상	미상	-	-	-
3	1438	강원 울진	正林寺	海月	坦修	乃宜
4	1440	경기 가평	永濟菴	了明		尙峯, 海尙, 海寶
5	1445	경상 함양	君子寺	海悟	洪禪, 戒禪	弘禪
6	1449	경기 개성	金沙寺	金戒信, 克浩, 信觀	惠頓, 省叢, 正心	-
7	1457	전라 전주	圓岩寺	性能, 達存	-	佛明
8	1459	미상	미상	敏豈, 性悟, 學柔	性安	文惠
9	1460	경기 한성	禪宗	道雲	-	雪雲
10	1460	전라 진안	中臺寺	寶明, 雪義	學義	-
11	1462	경상 진주	見佛庵	義一	宝應	-
12	1462	전라 고산	花岩寺	敏豈, 性悟	-	覺殊, 性會
13	1464	경상 경주	天龍寺	罔文, 正心	-	海祥, 竹靑
14	1465	미상	미상	乃義, 性聰	-	惠雄
15	1465	미상	圓覺寺	-		-
16	1465	경기 한성	校書館	-	-	-
17	1466	경상 경주	天龍寺	妙印	-	-
18	1467	충청 보령	金藏庵	信安, 玉暹	宋文林	-
19	1469	경기 안성	靑龍寺	性安, 斯允, 性哲	釋會, 學修	-
20	1488	전라 고산	花岩寺	性演, 罔修	-	了罔
21	1489	황해 서흥	慈悲嶺寺	-	-	-
22	1489	전라 광주	證心寺	洪道, 省安, 明印, 林倣	-	義惠
23	1491	경상 상주	龍潭寺	信牛	-	性祖
24	1491	전라 낙안	澄光寺	信悟	-	德全, 能一
25	1555	황해 황주	深源寺	罔雄, 罔菴, 守衍, 惠衍	-	-
26	1558	충청 천안	廣德寺	-	-	-
27	1646	전라 해남	大興寺	禪坦, 性洽, 雲密, 敬尙, 處元	哲儀	
28	1660	전라 낙안	澄光寺	戒雄, 海玉, 碩行, 敬圭, 淸稔	-	明淨
29	15C	미상	미상	-	-	-

다음에서는 위의 표에 보이는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판본의 개판(開板)에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한 각수(刻手)와 간선(幹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5.1 刻手

각수(刻手)는 불서간행에 직접 참여하는 역할로서 전문적으로 판각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 간행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개판에 참여하여 실제로 기능을 하는 역할은 각수(刻手)와 연판 등이 있다. 여기서는 각수만을 대상으로 「六經合部」의 개판에 어떤 인물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각수는 목판에 글자를 새기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 「六經合部」의 개판에 참여한 각수는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5명까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종 이상의 판본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각수는 1459년 미상본과 1462년 화암사본에 보이는 민은(敏崐)과 성오(性悟)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六經合部」의 개판에는 해당 사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전문 각수를 중심으로 각 판본들이 판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각수의 활동이 사찰간의 교류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조선 사찰본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살펴보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1555년 심원사본의 개판에 참여한 수연(守衍)과 혜연(惠衍)의 경우는 주로 황해도 지방에서 활동한 각수로 조사되었는데, 그들은 1554년 귀진사(歸進寺)의 묘법연화경과 1557년 귀신사의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개판에 각수로 참여하였고, 또한 1555년 양화사(陽和寺)의 금강반야바라밀경과 1564년 패엽사(悞葉寺)의 묘법연화경 등 4회 이상의 개판에 각수로 활동을 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평안도와 황해도에 소재하는 사찰을 오가며 판각 활동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646년 대흥사에서 「육경합부」의 간행에 참여한 선탄(禪坦)은 전라 해남 대흥사에서 활동한 전문 각수로 조사되었는데, 그는 1633~1653년에 이르는 20

년 동안 대흥사에서 있었던 판각에 4회 이상 참여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1660년 징광사에서 「육경합부」의 개판에 각수로 참여한 계웅(戒雄)과 석행(碩行)의 경우는 1656년에 같은 사찰에서 개판한 「詠月堂大師文集」의 각수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들은 징광사(澄光寺)에 소속하여 같이 활동한 각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도 1464년 천룡사본 개판에 각수로 참여한 정심(正心)은 1440년 경상도 상주의 봉암사에서 「함허당득통화상어록」, 1442년 경상도 문경 양산사에서 「금강경오가해설의」, 1448년의 「묘법연화경」, 1484년 경상도 원통암에서 「천수천안관자재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대다라니」 등에서 각수로 개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조사범위를 확대하면 적어도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사찰 간에는 각수가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六經合部」의 개판에 각수로 참여하였던 인물들의 다른 불교 전적 개판에 참여했던 사실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현전본 「六經合部」 刻手の 活動 樣相

번호	각수명	연도	소재지	사찰	서명
1	罔雄	1559	황해 평산	烟峰寺	妙法蓮華經
2	戒雄	1656	전라 낙안	澄光寺	詠月堂大師文集
3	明淨	1636	전라 순천	松廣寺	大方廣佛華嚴經疏
4	碩行	1656	전라 낙안	澄光寺	詠月堂大師文集
5	禪坦	1633	전라 해남	大興寺	妙法蓮華經
		1634	전라 해남	大興寺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635	전라 해남	大興寺	妙法蓮華經
		1653	전라 해남	大興寺	妙法蓮華經
6	性敏	1490	황해 서흥	慈悲嶺寺	蒙山和尚六道普說
7	守衍	1554	황해 서흥	歸進寺	妙法蓮華經
		1555	평안 태천	陽和寺	金剛般若波羅密經
		1557	황해 서흥	歸進寺	大方廣佛華嚴經疏
		1564	황해 문화	貝葉寺	妙法蓮華經
		1566	황해 수안	中庵	賢首諸乘法數
		1571	충청 은진	雙溪寺	佛說四十二章經
		1574	평안 상원	解脫庵	禪源諸詮集都序
8	玉暹	1477	전라 고산	花岩寺	妙法蓮華經
9	義俊	1448跋	미상	미상	妙法蓮華經

번호	각수명	연도	소재지	사찰	서명
10	正心	1440	경상 문경	鳳岩寺	涵虛堂得通和尚語錄
		1442	경상 문경	陽山寺	金剛經五家解說誼
		1448跋	미상	미상	妙法蓮華經
		1484	경상 영천	圓通庵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 導大悲心陀羅尼經
11	處元	1653	전라 해남	大興寺	妙法蓮華經
		1658	전라 무안	法泉寺	妙法蓮華經
12	淸稔	1663	경기 진안	表訓寺	妙法蓮華經
		1673	경기 양주	佛岩寺	釋氏源流應化事跡
13	海玉	1647	전라 순천	松廣寺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56	전라 낙안	澄光寺	詠月堂大師文集
14	海月	1448跋	미상	미상	妙法蓮華經
15	惠衍	1554	황해 서흥	歸進寺	妙法蓮華經
		1555	평안 태천	陽和寺	金剛般若波羅密經
		1557	황해 서흥	歸進寺	大方廣佛華嚴經疏
		1559	황해 평산	煙峰寺	妙法蓮華經
		1559	황해 서흥	星宿寺	大佛頂如來蜜因首楞嚴經
		1564	황해 문화	貝葉寺	妙法蓮華經

5.2 幹善・化主

간선(幹善)과 화주(化主)는 불서 개판에 있어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나, 불서 간행을 하는데 소용되는 비용과 제반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다. 경우에 따라 ‘大化主, 知殿, 三綱, 別座, 勸化’ 등의 직명으로 그 소임을 세분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범용되는 직임인 간선(幹善)과 화주(化主)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간선과 화주는 ‘幹善化主’라 하여 간행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칭하여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의 <표 6>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간선이나 화주는 소임의 성격상 여러 사찰의 개판에 참여하기보다는 당해 사찰에 소속하여 대체로 한시적으로 개판불사를 주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특이한 사례로 1449년 금사사(金沙寺)에서 간선으로 소임을 맡았던 정심(正心)은 1464년 천용사본의 개판에 각수로 참여

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사찰의 개관 불사에 간선(幹善) 또는 전문 각수로 참여했던 스님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각수는 비교적 동일 지역에 소재하는 여러 사찰의 개관에 각수로 활동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간선(幹善)과 화주(化主)는 소임의 성격상 소속하고 있는 사찰의 개관 불사에만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結 論

이 연구는 조선전기 1424년에 신현(信玄)과 의준(義俊) 스님의 부탁으로 성달생이 『六經合部』를 편찬한 판서본(板書本)을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처음으로 개관한 이래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복각 또는 재편 간행한 판본을 대상으로 시대·지역·계통별로 분석하고, 또한 개관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간선과 각수를 중심으로 그들의 활동양상을 분석한 결과는 대략 아래와 같은 사실로 정리된다.

첫째, 도인 신현(信玄)이 성달생(成達生)에게 판서본의 필사를 의촉하여 1424년 전라도 안심사에서 처음으로 개관된 『六經合部』는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금강경 등 6종의 불경 가운데 핵심적 내용만을 선별하여 휴대와 독송에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간행되었다.

둘째, 안심사본이 1424년에 개관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49종에 달하는 많은 판본이 개관된 사실을 조사하였는데, 대체로 임란 이전에는 원간본인 안심사본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후에는 6경 가운데 오로지 금강경만을 대상으로 개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사결과 안심사본의 원형을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판본은 30종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외 19종은 재차 변용되어 주로 금강경만을 간행하고 있어 이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셋째, 연구대상 30종을 대상으로 시대별 간행 현상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3%

에 달하는 28종이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15세기 동안에 왕실과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왕위를 찬탈한 세조가 그의 재위 기간에 전체 판본의 40%가 개판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세조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각종 불교행사와 불교서적을 간행하는 등의 호불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로 이해된다.

넷째, 지역별 개판 현상을 분석한 결과, 전라도 지역에서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역별로 가장 많은 판본이 개판되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원간본이 전라도 고산 안심사에서 처음 간행된 이래 이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개판활동이 이루어졌던 결과로 생각된다.

다섯째,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일련의 계통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행자수는 동일한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4종의 판본에서 판심 상에 흑어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판본에서는 어미가 없는 형식이 대부분 원간본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섯째, 「六經合部」의 개판에 참여한 각수(刻手)의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여러 판본의 판각에 중복 참여한 각수는 1459년 미상본과 1462년 화암사본에 보이는 민은(敏崐)과 성오(性悟)로 조사되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류 활동이 나타나지 않으나, 이를 사찰본 전체로 확대 조사하면 동일 지역 내에서 다른 불서의 개판에 참여했던 사례를 볼 수 있다.

일곱째, 개판의 총 책임을 맡은 간선(幹善)과 화주(化主)는 대부분 그들이 소속한 사찰에서 하나의 불서 개판에만 참여하였을 뿐, 다른 사찰로 이동하면서 개판 불사를 주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정심(正心)의 경우는 각수와 간선의 소임을 맡아 여러 사찰에서 활동했던 사례가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 불서인 「六經合部」는 대승경전의 대표적 불경 6종의 핵심 내용만을 선별 편성하여 간행함으로써 초학자나 불교인들이 항상 수지하면서 독송할 수 있는 편의를 도모하는 불서이다. 이러한 까닭에 조선시대에는 여러 사찰에서 개판 간행하여 전국적으로 다양한 판본이 유통되고 있어 향후 다른 불서를 연구하는데 일정한 상호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상호. “寺刹板의 鍊板과 諸 役員에 관한 考察.” 『사회문화연구』 11(1992). 69-81.
-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 研究.” 『도서관학』 제20권 제1호(1991). 331-403.
- 김상호. “朝鮮朝 寺刹板 刻手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0.
- 김은진. “蒙山 德異 편찬의 六道普說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2.
- 남권희. “慶尙道 地域에서 刊行된 佛敎 書籍에 관한 研究.” 『恒心 윤병태박사 정년 기념논문집 한국서지학논집』 (1999). 351-456.
- 박도화. “朝鮮時代 金剛經 版畫의 圖像.” 『佛敎美術研究』 3/4合輯(1997). 71-93.
- 박도화. “조선시대 불교판화의 양식과 각수.” 『강좌미술사』 29(2007). 175-212.
- 박민희. “智異山 所在 寺刹의 朝鮮時代 刊行 佛書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9.
- 孫晉泰. “成達生筆寫佛經存本.” 『春秋』 제2권 제3호(1941).
- 송일기 외. 『김민영 소장 古書目錄』.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 宋日基. “高山 花岩寺 刊行 佛書의 考察.” 『書誌學研究』 18(1999). 253-283.
- 宋日基. “高山 花岩寺와 成達生.” 『전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립20주년기념학술논문집』 5(1999). 31-71.
- 이선이. “백의해의 관음수행관 고찰.” 『불교연구』 24(2006). 165-203.
- 정왕근. “朝鮮時代 妙法蓮華經의 板本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12.
- 智 冠. 『한국불교소의경전연구』. 서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69.
- 千惠鳳. “成達生書 楞嚴經 初刊本.” 『忠北史學』 제14집(2005). 105-127.
- 천혜봉. 『한국서지학』. 서울: 민음사, 2006.
-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 최동원. “朝鮮時代に 刊行된 禪源諸詮集都序의 書誌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8.

한지희, “竹菴 編纂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的 書誌의 研究.”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9.

〈사진자료〉

原刊本 安心寺板의 書影



